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급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자면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 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친한 친구나 착한 이웃이 심판을 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공격적이고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말로 비판을 하던지 아니면 듣기에 불편해 하든지 상관 없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5:2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는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상관이 없고 오래 살아 장수를 누린 사람이든지 젊은 나이에 죽어 단명을 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나만 기뻐하지 말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보라는 교회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데 현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나 선교에 대한 시각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 년에 한 번 총동원 주일에만 겨우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는 그저 한 달에 한번 선교 헌금을 보내거나 몇 년에 한 번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의 전도나 선교를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나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8:3-4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 일상의 삶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78:5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셔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경험을 나도 하게 되고 또한 그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서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들의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8편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만을 섬긴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라'라는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라고 알려주는 사랑의 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다 천국에 들어 가도록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